

생리대

정보라

소설가

“기본소득 때문에 이혼했다”고 나윤의 아버지는 말하고 다닌다. 혹은 그렇다고 한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윤이 아버지가 이혼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 나윤이 알고 있는 진실은 다르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생리대 때문이었다.

우리 집이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해 보게 마련이다. 나윤이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였다. 나윤은 그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동네에 새로 문을 연 헬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다. 일당을 받아서 나윤은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샀다. 자기 돈을 가져본 것도, 생리대를 구입해 본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

나윤은 기뻐다. 이제 수업이 끝날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를 몇 개씩 몰래 뽑아두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월경을 시작한 이래 나윤은 집에 가는 시간부터 다음날 다시 학교에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학교 화장실 비상 생리대를 뽑아 비축해 두었다. 아이들이 뒤에서 ‘생리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나윤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생리대를 뽑아다 모아서 파는 거 아니냐고 나윤에게 따지는 아이와 싸웠던 적도 있었다. 비상 생리대 자판기가 비어 있거나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양호실에 가서 보건 선생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학교에 있는 생리대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양이 많은 날이나 밤에 잘 때 사용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보건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가끔 오버나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달 그렇게 얻어 쓸 수는 없는 노릇

이었다.

“엄마가 안 사 주시니?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동급생과 싸웠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나윤도 물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생리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며 나윤에게 생리대를 사주는 것도, 생리대 살 돈을 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면 생리대를 만들어 주었다. 면 생리대는 속옷과 겹달아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자주 씻고 아무리 빨아도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일어났을 때 의자에 선명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핏자국을 나윤도 보았고, 나윤의 옆자리와 뒷자리, 이어서 앞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보았다. 그 뒤로 나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면 생리대를 집 밖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나윤이 처음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구입한 다음 날 아버지가 나윤의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집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일회용 대형 생리대와 립글로스를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때리지 않았다. 폭력은 야만의 발현이라고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다. ‘대화’를 하자며 아버지는 나윤에게 립글로스 앞 방바닥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어린 시절부터 사치에 물든 사람이 자라면 어떤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오랫동안 설명했다. 몇 시간이나 설명한 끝에 아버지는 나윤에게 직접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나윤이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을 때 관장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관장님은 미안해하며 나윤을 내보냈다.

립글로스는 없어도 상관없었다. 생리대는 필요했다. 생리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운 날에 땀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듯이, 월경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으니까 ‘생리’현상이었다.

“우리 집은 왜 생리대 살 돈도 없어?”

나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춘기 딸에게 생리대를 사줄 수 없을 만큼 집이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밥을 굶거나 집에 전기나 수도가 끊어진 적은 없었다. 나윤은 평범한 집에서 살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들이 다 하듯이 학원에 다녔고,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갖추어 입고 신었다.

다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에 대해 나윤은 발언권이 없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

부였고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세 식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부와 함께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돈 쓴 내역을 점검받는 것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나윤이 보기에 그것은 취조였다. 두부 한 모, 화장실 휴지 한 롤을 구입한 것까지 어머니는 일일이 그 필요성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지출을 정당화하고 방어해야 했다. 가끔 그 ‘대화’는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나윤의 동급생 중에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윤은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어도 저렇게 가게부 계산이 복잡한데 부모가 모두 돈을 버는 집은 ‘대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지레 끔찍하게 여겼다. 다른 집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수증까지 따져가며 가게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른이 혼자서 돈을 버는 집이라도 나윤의 아버지처럼 여자아이가 생리대를 사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집안의 어른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으로 아이가 무엇을 사는지 영수증을 요구하며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 아이가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할 재량과 자유를 준다는 것, 그게 보통이라는 것 - 나윤에게는 이 모든 발견이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나윤의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이제까지 썼던 17년치 가게부를 보여주고 한밤중까지 이어졌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다고 어머니는 나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제적 학대’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민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 배우자의 돈 씹씹이를 계속 비난하는 것, 일일이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 가게 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 모든 행위가 경제적 학대였다.

“돈이 들어왔어.”

어머니가 나윤에게 말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야. 기본소득이래.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준대. 이걸 네 아빠도 건드릴 수 없어. 네 아빠하고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나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갈래?”

나윤은 대답 대신 우선 급한 사안부터 물었다.

“그럼 나도 열여덟 살이 되면 기본소득 받을 수 있어?”

“그럼, 받을 수 있지.”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얼른 계산해 보았다. 삼 년 반 정도 버티면 나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면 된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삼 년 반만 버티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어머니가 나윤까지 먹여살리는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한테는 기본소득 들어온 거 얘기 안 했어. 그렇지만 아버지도 알 거야.”

어머니가 속삭이듯 덧붙였다.

“아버지하고 계속 살면 너도 기본소득이 들어와도 아버지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 세상을 휩쓸었을 때 재난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전부 지급되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지원 단위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되었고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머니나 삼촌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돈을 혼자서 다 써버렸다고 했다.

“어디다 썼는데?”

나윤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대답했다.

“썬글라스를 샀어.”

나윤은 말했다.

“나 엄마 따라 갈래.”

그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아둔 기본소득은 방을 구해서 월세와 보증금을 내자 거의 사라졌다. 어머니가 그 다음 달 기본소득과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베개도 이불도 없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패딩점퍼를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야 했다.

어머니는 첫 월급을 받은 날 나윤을 자신이 일하는 마트로 불러서 이불과 베개를 골라보라고 했다. 나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침구를 선택했다. 어머니는 직원 할인가로 나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샀다. 사는 김에 프라이팬과 뒤집개도 샀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냄비 하나로 한 달째 버티고 있었다.

“전기밥솥을 살까?”

어머니가 물었다.

“비싸지 않아?”

나윤이 걱정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동의했다.

어머니는 즐거워 보였다. 나윤도 행복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삶은 가난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나윤도 어머니와 함께 떠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나윤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 나윤의 친권을 아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려면 법정에서 한참 다투야 했고 그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분할해서 앞으로 갚아 나가야 했다.

그러나 매트리스 위에서 어머니와 둘이 패딩점퍼를 나눠 덮고 자도 나윤은 지금이 좋았다. 조그만 예산 안에서 어머니와 서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의논해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필요한 크기의 생리대를 사고 푼돈이 남으면 싸구려 립밤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도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장을 보고 나면 영수증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삼년 반만 더 버티면 나윤도 자신의 기본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방을 구하고 전기밥솥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전에 어머니가 나윤의 친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나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이나마 스스로 벌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자유이고 존엄이었다. 자기 돈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본소득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기본소득은 사람을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했다. 기본소득 때문에 어머니가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나윤은 사치에 물들었다는 거짓말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사치에 물들 만큼 큰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전자렌지도 살 수 있는데, 하고 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니 사치나 도박에 사용할 만큼 큰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아버지 본인도 알 것이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는 기본소득을 아버지가 굳이 빼앗지 않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나윤은 알 수 없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돈 받았대!

어머니가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 뭐 먹고 싶어, 우리 딸?

나윤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궁리하며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끝>